

## 이강소의 획과 추상적 풍경화

김영나(서울대학교 교수)

1998

1985년 경부터의 이강소의 작품은 주로 회화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그전부터 시도하던 조각작업도 꾸준히 계속되고 최근에는 사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의 주요 관심사는 오리, 사슴, 보트가 등장하는 추상적 풍경화이다. 화가 자신은 이러한 주제를 그리게 된 동기가 대학의 동료들과 같이 바닷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문득 푸른 바다 위에 하얀 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또 그 무렵에 동물원에 자주 들리면서 사슴이나 오리의 모습을 많이 비켜보고 그 역동감과 생명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러한 연유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처음에 그는 우선 물감을 열게 써 붓으로 전체 화면을 채색하고, 그 위에 빠르고 운율감을 느끼게 하는 붓의 획들이 화면을 가로지르게 하여 물결이나 풍경을 시사하였다. 대체로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막연한 지평선과 같은 좀 더 추상성이 강조되었는데, 오리나 배, 또는 사슴과 같은 뚜렷한 형상이 화면에 스케치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1988년경부터였다.

이강소는 오리나 물, 또는 사슴을 그릴 때 동물원이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들고 작업한다. 그는 묘사하기보다는 이들을 몇 개의 획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다시 지우고 위에 겹쳐 그린다. 또 하나의 형태에 다른 형태를 겹쳐 그리거나, 화면을 아래 위로, 아니면 마치 여러 폭의 제단화처럼 나누어 그리는 시도를 한다. 청회색이나 흰색을 사용하여 이렇게 형성된 화면은 마치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와 같이 거친 붓이 여러 번 지나간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붓의 사용은 많은 평론가들, 특히 외국 평론가들에게 동양의 서체적 특징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강소의 획과 서예와의 관련 또는 동양적 특징을 찾아내는 작업은 상당히 흥미 있는 문제이다. 그의 작품에서는 한편으로는 전통 미학의 고수와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의 현대미술의 수용의 고민이 둘 다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그와 같은 현재 50세 전후의 세대들에게는 공통적인 것이다. 이들은 미술 작품뿐 아니라 생활 자체에서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사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전환기에 자랐던 이들은 가정에서는 전통적 관습과 교육을 받았으면서, 학교 교육은 서양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색채면에서도 그가 사용하는 제한된 흰색이다, 회색, 또는 청색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모노크롬 미술과도 연관이 되지만 좀 더 멀리는 전통적인 문인화, 아니면 조선 백자나 분청사기와도 비교될 수 있다. 어쩌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그와 오래 전부터 친분을 가진 이우환의 작품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무한한 공간을 시사하는 이강소의 작품의 회화 공간은 이우환의 작품과 유사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이강소는 세잔느가 어떻게 푸른색을 사용했는지,

또 미국의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환원적인 작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한국적이고 어디까지가 서양적이냐를 따지는 것은 그의 경우 매우 애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가장 동양적인 성격은 서양 회화에서와 같이 전체를 한눈에 보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마치 동양의 산수화처럼 시간을 가지고 보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즉 그림을 보는 사람이 한 부분을 보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서, 작품 속에 들어가 시상을 느끼고 참여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화가가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린 그 과정을 느끼며, 채색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현상과 붓의 터치 등의 예상치 못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주관을 강조하기보다는 보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연상을 유도하고 보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통로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것은 마치 전통 산수화에서 변화무쌍하고 거대한 자연을 도저히 한 눈에 볼 수 없으므로 그림 속에 들어가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면서 다시점을 통해 감상하는 구성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바비칸 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현대미술전」에서 그의 작품은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1993년에는 뉴저지의 버어건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강소의 작업은 많은 동양의 미술가들이 고민하는 문제, 즉 전통과 현대성을 어떻게 만나게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작가임에 틀림없다.